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MECENAT
with you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

Gyeongnam Mecenat



Vol. 39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발행인 김태한
발행일 2025. 8.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Tel. 055 285 56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편집인 석수근
진행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055 296 4995)

CONTENTS

스페셜 인터뷰	04 김태한 경남메세나협회 신임 회장	포토포엠	34 울산 대왕암 공원 솔숲의 아침 by. 김정호
스페셜 테마	08 문화도시 밀양은 지금 가장 빛납니다. - 밀양아리랑예술단 김금희 단장	문화공간	36 예술가들의 손길로 매 순간 새로운 '고성청년예술촌' 38 마산역 로컬문화예술플랫폼 '이안아트홀'
아름다운 동행	12 남자, 노래하다 - (주)라쉬반코리아 × 창원시남성합창단 16 기대되는 만남의 시작 - (주)엔티코리아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메세나 소식	40 2025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41 2025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 42 제43회 경상남도 연극제 경남메세나협회 - 밀양예총 업무협약 체결
메세나 인터뷰	20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 우수AMS(주) 김선우 대표이사 24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당신 - 신성델타테크(주) 구자천 회장	인조이 컬러	44 빛을 품은 미술관 46 피아니스트 이주은, 윤이상을 말하다 48 Player's Playlist
지금 경남예술	28 아인 박종한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으며 32 2025 경남국제아트페어 Own The Moment: Collect, Transform, Experience		

Cover Story

강하경, A Strange Thread, 2025 비단에 먹, 금분, 90.0 x 72.7(cm)

강하경은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성청년예술촌 소속 청년 작가다. 이상향에 대한 상상과 여정을 전통 고사 속 도원경의 구조를 빌려, 회화와 먹 드로잉으로 표현한다. <A Strange Thread> 는 비단 위에 세 개의 바위를 수직으로 쌓고 그 위로 금분의 선을 그어 고사에 등장하는 문학적 장면 '신이한 끈이 내려온다'를 시각화한 것이다. 우연한 계기와 매개자의 등장 등 이상향에 이르는 규칙적 구조가 암시된다. 바위는 축소된 산의 형태를 띠며, 금 선은 화면에 신비로운 긴장감을 부여한다. 이는 자연을 빌린 형상을 통해 사라진 세계의 질서와 경계를 상상하게 하는 단서로 기능한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열린 문화예술’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생태계 구축



김태한 경남메세나협회 신임 회장

(사)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갖고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현해 나갈 김태한 회장으로부터 (사)경남메세나협회 회장으로서의 포부와 비전을 들어봤다.

Q. 문화예술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경남메세나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기대와 함께 책임감도 크실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경남 문화예술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며 ‘문화로 행복한 경남’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문화예술 후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이어나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화에 힘을 보태고 싶다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마음속에 품어 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돼 설렘과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남메세나협회가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처럼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 성장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 등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경남메세나협회는 매년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국내 메세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꾸준히 메세나 활동을 이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2007년 79개 회원사와 10개 팀 결연을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재는 219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매년 200여 개 팀의 결연을 성사시키며 전국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 문화예술 후원에 섰듯 동참해 주신 기업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업 이윤에 급급하지 않고 문화예술 후원을 의미 있는 경영활동으로 인식, 이를 ‘사회적 가치’로써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꿈꾸는 기업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도 메세나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남에는 저마다 분야에서 최고를 지향하며 꾸준히 정진하는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 경남메세나협회가 기업과 예술단체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덕분에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도 한몫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문화 예술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박수 덕분에 문화 예술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예술단체 그리고 도민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 오늘날 경남 문화예술의 견고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경남메세나협회가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처럼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습니다.

”



Q. 제13대 회장 취임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신가요?

경남메세나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2025년에도 매칭펀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경남메세나협회는 중소기업 164개 팀, 대기업 38개 팀 등 총 202개 팀 지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규 문화예술단체의 진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현재 경남 12개 시군이 참여 중인 메세나사업을 2027년까지는 경남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ESG+MECENAT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사 및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ESG 경영 컨설팅을 지원토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메세나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메세나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캠페인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히 후원기업의 기부금 조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Q. 문화예술이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이나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은 창작하는 이와 향유하는 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이 특정 계층이 누리는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이를테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메세나사업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회원사 지원사업에 장애인 작품 대여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의 활동 폭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또 문화 나눔 사업을 통해 청년 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나눔 공연, 예술 교육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Q. 경상남도에서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과 도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경남 문화예술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화와 활성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상남도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 및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다면 문화예술계에 민간 기부가 보다 활성화돼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선순환고리가 조성될 것입니다. 예컨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확산하면서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생산하게 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함께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활동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Q.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경남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은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듭니다.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도록 이끍니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위한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지역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만큼 인프라는 물론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오랜 노력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경남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현재의 문



화예술 자원이 조화를 이뤄 많은 분들이 ‘경남의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업과 문화예술인,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넉넉하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공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경남에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 후원하는 기업인이 적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례를 남긴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행에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경남의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의 문화예술 토대 위에서 마음껏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결연 기업과 동행하면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발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청춘님이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동지선달꽃본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으로
 문화도시 밀양은
 지금 가장 빛납니다.

밀양아리랑예술단 김금희 단장

*폰트 출처 : 밀양시청<밀양아리랑체>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이라는 비전으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해 온 밀양시는 2025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밀양시가 추구하는 햇살문화도시에서 ‘햇살’은 밀양아리랑이 시민들에게 주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밀양다움의 코걸 콘텐츠 개발로 문화도시 밀양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는 밀양아리랑예술단 김금희 단장을 만났다.

날 좀 보소~ 밀양 보소~

밀양아리랑예술단은 2024년 지역 고유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인 ‘지역대표단체 지원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창단했지만 그 연원은 더 오래됐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밀양아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민들이 모여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이 조직됐고, 밀양아리랑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소리꾼을 육성했다.

그때부터 밀양아리랑과 함께해 온 김금희 밀양아리랑예술단 단장은 밀양아리랑이 자신의 오랜 꿈이었다고 말한다.

김금희 단장

“대학 졸업 후 고향 밀양으로 돌아온 뒤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 쪽 활동해 왔어요. 밀양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세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밀양에 없는 무용협회를 만드는 것, 두 번째가 아리를 주제로 작품을 하는 거였어요. 마지막이 밀양아리랑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거였는데 모두 이뤄졌네요.”

밀양아리랑은 예부터 민초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노래로, 김금희 단장은 밀양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담긴 이 노래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건 밀양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창단 첫해는 지역 예술인 발굴 육성에 중점을 뒀다. 청년예술인, 지역민 예술인, 영재 예술단 세 그룹으로 단원들을 구성했으며, 밀양아리랑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창작 연희극 <영등할매 아리랑> 등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밀양아리랑의 가치와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임을 입증했다.





“밀양에서 태어나 밀양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만의 특성이 있어요. 밀양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죠. 때문에 밀양아리랑 예술단은 시민참여형 예술활동을 지향하게 됐고, 시민들이 문화 예술 참여를 하면서 직접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밀양아리랑예술단의 또 다른 강점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패턴의 공연이 아닌 오직 밀양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지역성을 담은 공연을 한다는 데 있다. 밀양 백중놀이, 범흥상원놀이, 감내계줄당기기 등, 잘 이어온 전통놀이나 점필재 김종직, 독립운동가 김원봉 같은 밀양의 인물을 담아 공연 콘텐츠를 만든다.

김금희 단장

“저희 예술단은 ‘법고창신(法古創新)’ 즉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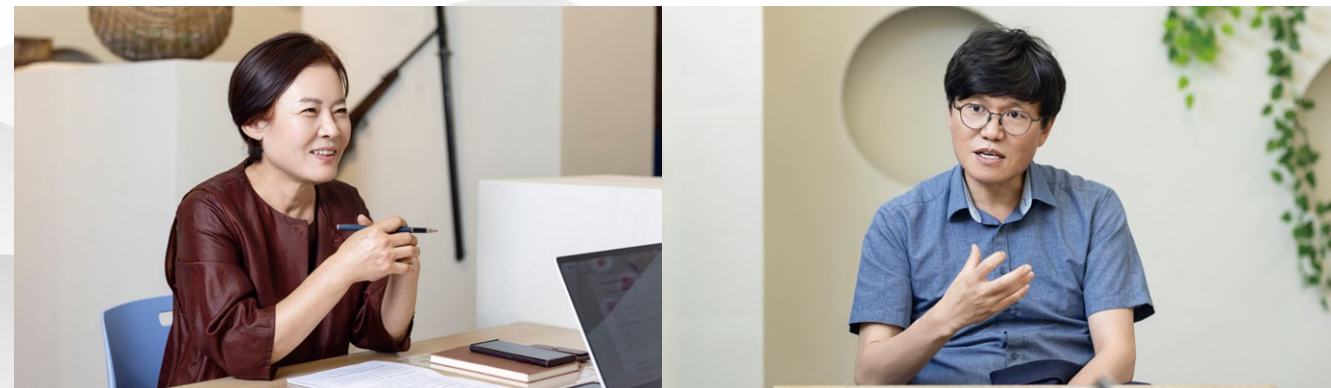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산인 밀양아리랑을 재해석해서 밀양다움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올해 1월에 선보인 아리랑영재단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인 가무악극 <날 좀 보소>도 아리랑의 가치와 정신을 지역 역사 인물과 융합해 큰 각광을 받았다. 가장 밀양적인 것들과 아리랑을 접목하여 밀양아리랑을 어떻게 미래 세대로 전승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밀양아리랑으로 도시 브랜딩

2025년 올해의 문화도시

그간의 활동이나 성과를 보면 밀양아리랑예술단은 밀양아리랑을 중심으로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밀양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비전인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문화도시 밀양’에서 ‘햇살’은 밀양아리랑이 시민들에게 주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장병수 밀양시문화도시센터장은 말한다.



왼쪽부터 밀양아리랑예술단 김금희 단장과 밀양시문화도시센터장 장병수 센터장

장병수 센터장

“밀양다움을 표현한 밀양아리랑예술단의 콘텐츠가 밀양이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햇살문화도시 밀양’에서 햇살의 의미는 밀양아리랑의 고유함과 역동성, 참여의 가치를 담고 있고, 그것이 바로 밀양다움입니다. 이번 선정은 밀양아리랑예술단에 있어서도 밀양아리랑을 세계화하고 브랜딩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아리랑예술단은 밀양시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문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밀양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에서 밀양아리랑 콘텐츠를 창의산업으로 확대하는 일도 밀양시문화도시센터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밀양아리랑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올해도 밀양아리랑예술단은 수많은 공연을 앞두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독립군 아리랑> 공연과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리바운드 공연축제에 아리랑영재단의 가무악극 <날 좀 보소>를 펼친다.

김금희 단장

“11월에는 신작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임진왜란 때 활동한 우리 지역 출신인 사명대사의 활약을 소재로 한 가무악극 <사명당 아리랑>입니다. 이 밖에도 밀양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국제 교류행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김금희 단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밀양아리랑 콘텐츠를 개발해 왔다. 밀양아리랑예술단으로 김금희 단장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밀양이라는 도시가 브랜딩 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는 것이다.

김금희 단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밀양아리랑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단계라 생각하고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예술인들의 굿즈나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문화의 가치를 브랜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화도시의 본질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통의 바탕 위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남자, 노래하다

(주)라쉬반코리아 × 창원시남성합창단

남자가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강인함 뒤에 숨겨진 부드러움이 엿보일 때가 아닐까. 넓은 어깨로도, 탄탄한 근육으로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목소리’는 해낼 수 있다. 80여 명의 남자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그들의 합창은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악이 된다. 창원시남성합창단은 창단 이래 19년 동안 무대 위에서 남성들만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성합창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묵묵하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기능성 속옷의 대표 주자 (주)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다.

‘남자’의 향기 가득한 두 단체의 만남

남성 속옷에 기능성을 더해 기능성 속옷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킨 (주)라쉬반코리아 백 대표는 열정적인 기술 개발과 진취적인 시장 개척으로 기능성 속옷 시장에 한 획을 그었다. 라쉬반은 백 대표의 오랜 노력과 결과물이 집약된 제품으로, 남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 되어주고 있다.

여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남자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80여 명의 남자들이, 그것도 중장년의 남자들이 모여든다. 하는 일은 모두 달라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같다. 바로 음악을 즐기고 합창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창원시남성합창단은 지난 2006년 ‘경남파파합창단’으로 창단한 이래 지금까지 무대에서 합창으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주)라쉬반코리아와 창원시남성합창단, 두 단체가 매칭펀드를 통해 손을 맞잡았으니 말 그 대로 ‘남자’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평소 라쉬반 제품을 즐겨 입던 직원들은 백 대표의 후원으로 더 풍성한 무대를 만들 수 있었고, 남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홍보하러 다녔던 백 대표는 후원을 통해 80여 명의 홍보대사를 얻게 됐다. 두 단체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오랜만에 함께한 자리에서도 웃음꽃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



창원시남성합창단 이상엽 지휘자



창원시남성합창단 안희태 단무장

가장 어려울 때 손잡아 준 사람

창원시남성합창단은 지난 19년 동안 꾸준히 활동한 결과 경남을 대표하는 남성합창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단원 구성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매주 모여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 합창의 매력을 전하는 것을 멈춘 적은 없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였지만, 힘든 순간도 많았다. 처음 합창단을 시작할 때는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원받는 단체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십사일만 비용을 모아 겨우 무대를 만들었지만, 원하는 만큼 풍성한 무대를 꾸밀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합창단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을 때, 단원 중 한 명과 친분이 있던 ㈜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를 떠올렸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평소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 샀던 백 대표였기에 기꺼이 손을 잡아줄 거라 믿었다.

㈜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문화입니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필요하니까요. 평소 합창단 활동을 지켜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창원시남성합창단 이상엽 지휘자

“처음 합창단을 시작할 때만 해도 메세나 지원을 받는 단체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라쉬반코리아 덕분에 매년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만들면서 다른 단체의 부러움을 사는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 나를 위해 노래하다

매칭펀드로 맺어진 인연은 지난 2023년 더 큰 인연을 낳았다. 백 대표가 단장으로 취임하면서 문화예술 단체와 후원 기업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백 대표는 경영하라 연구하라 바쁜 와중에도 연습 시간에 찾아가 단원들을 응원하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가장 열렬한 관객이 되어주고 있다.

㈜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

“창원시남성합창단은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연습 참석률이 진짜 높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안타깝게도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함께 노래하지는 못하지만, 무대를 볼 때마다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특히 <남자, 나를 위해 노래하다> 공연은 안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남자, 나를 위해 노래하다>는 지난 2023년 성산아트홀에서 펼쳐진 창원시남성합창단의 합창 뮤지컬이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이 ‘남자들의 이야기’로 무대를 꾸며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합창에서 한발 나아가 뮤지컬을 담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단원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이 공연은 앙코르 공연까지 펼쳐면서 창원시남성합창단 최고의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했다.

창원시남성합창단 안희태 단무장

“이 공연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최고의 무대라고 찬사를 듣는 공연 중 하나예요. 단원들이 매번 하는 연습도 모자라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거든요. 다들 바쁜 와중에도 열정을 가득 쏟았던 무대였습니다.”



경남을 넘어 세계로, 카네기홀 무대를 기약하며

창원시남성합창단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곡, 가요, 민요, 오페라, 성가, 영화음악 등 폭넓은 레퍼토리로 남성합창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남자 80여 명이 모여 만들어내는 남성합창의 진수는 다름 아닌 ‘부드러움’이다.

창원시남성합창단 이상엽 지휘자

“남성합창 사운드는 무궁무진해요. 목소리 하나로도 굉장히 울림이 좋은데, 이걸 합창으로 선보이면 여기서 나오는 울림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단순히 크고 웅장할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남성합창의 매력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중후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바로 우리 합창단의 매력입니다.”

창원시남성합창단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이제 경남을 넘어 세계로 간다. 2026년 창단 20주년을 맞아 미국 카네기홀에서 합창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카네기홀 공연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마쳤고, 지금은 더 많은 합창단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께 무대에 오를 팀을 모집 중이다. 합창단이 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경남 전역으로 찾아가 공연을 펼치고, 나아가 카네기홀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의 든든한 후원 덕분이었다.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남자들의 우정

오는 9월 4일에는 성산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창원시남성합창단의 제19회 정기연주회가 펼쳐진다. 이 자리에서도 백 대표는 단장으로 또 후원기업 대표로 가장 열렬한 팬이 되어 무대를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대에서 함께 공연할 날도 기대하고 있다.



㈜라쉬반코리아 백경수 대표

“단원 여러분께 폐가 되지 않는다면, 한 곡 정도는 무대에서 함께 합창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하모니의 감동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창원시남성합창단 안희태 단무장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다른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짜릿한 감동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을 위한 무대는 늘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남자들을 위한 기능성 속옷을 만드는 기업이 만나 만들어낸 남자들의 진한 우정, 그 우정으로 만들어낸 무대가 경남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군대 이야기보다, 축구 이야기보다 더 즐거운 남자들의 수다를 들으며, 진정한 강인함이란 부드러움에 있다는 걸 깨달은 향기로운 만남이었다.



결연으로 확장되는 세계

기대되는 만남의 시작

(주)엔티코리아 ×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두 사람은 만날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주)엔티코리아의 엄희량 대표이사와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이하서 지휘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진 역량을 기꺼이 나누려는 모습까지 닮았다. 이제 막 시작된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서로에게 울림을 주는 동반자

(주)엔티코리아와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매칭펀드 사업으로 손을 잡은 지 이제 1년 차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은은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엄희량 대표이사와 이하서 지휘자의 분위기가 묘하게 닮아있어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결연은 이제 시작이지만, 사실 이들의 인연은 지난 2021년부터 쪽 이어져 오고 있었다.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하서 지휘자

“저희 인연은 제가 창원에서 먼저 경남의 청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SOM 챔버 오케스트라’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매칭펀드 사업으로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진주로 와서 새롭게 오케스트라를 만들면서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고 계십니다.”

엄희량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는 (주)엔티코리아는 폴리프로필렌 원단을 사용해 FIBC BAG이란 산업용 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이라는 것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돼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여성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주)엔티코리아 엄희량 대표이사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하서 지휘자

(주)엔티코리아 엄희량 대표이사

“(주)엔티코리아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어요. 창업할 때부터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10년, 15년 정도 되신 장기근속자가 장애인분들이세요. 이처럼 저희는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일 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 1 __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
- 2 __ 썬엠티코리아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3 __ 산청군 사회적기업 썬엠티코리아 전경

썬엠티코리아 임희량 대표이사

“예술이라는 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견 없고 경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서 지휘자님을 만나고 왜 예술 후원을 생각 못 해봤을까 싶었어요. 그동안 소외 계층만 생각해 왔는데 음악을 통해 제 시선의 폭을 넓혀서 사회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희 회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시다 보니 예술을 접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해서 지휘자가 이끌고 있는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창단 3년 차를 맞이한 진주 기반의 풀편성 오케스트라다.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음악가 50여 명이 모여 진주를 넘어 문화 소외 지역이 많은 서부 경남까지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해서 지휘자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2년 동안은 아무런 지원 없이 활동했어요. 올해는 썬엠티코리아와 매칭을 통해 연주자들에게 사례금도 줄 수 있고, 연주 기회도 더욱 풍성해질 거란 생각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썬엠티코리아에 방문은 처음인데 회사 마당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으로 연주회를 열면 어떨까 싶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열정

계명대학교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하고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오케스트라 지휘 박사를 수료한 이해서 지휘자는 진주와 창원에서 유일한 여성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이런 수식어를 생각할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말한다.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해서 지휘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때만 ‘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휘자는 나밖에 없구나’라고 인지하게 돼요.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다가오는 연주회들과 단체에만 집중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 덕분에 올해 한국지휘자협회가 선정한 우수 지휘자 7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임희량 대표이사는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해서 지휘자와의 인연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청각장애인 합창단을 8년간 가꿔 온 이해서 지휘자의 경험이 회사 직원들과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음악으로 깊이 교감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썬엠티코리아 임희량 대표이사

“예술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에 스며들어 누구나 친

근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예술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여 특히 정서적 치유와 위로를 건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역할을 하는 거겠죠. 더불어 저희 같은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걸 보고 다른 기업들도 좋은 기회를 마련하면 더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27일,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LH 본사 대강당에서 제3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해서 지휘자는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클래식 문턱을 낮춰 많은 분들에게 접하게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고전 작곡가인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의 곡을 연주하며, 2부에서는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 전 악장을 감상할 수 있다.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제3회 정기연주회가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알리는 뜻 깊은 시작이 될 것이다.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우수AMS(주) 김선우 대표이사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이는 데 약 2~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동차 한 대도 이런데, 우리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그중에서도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우수AMS(주) 김선우 대표이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도, 적어도 예술만큼은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메세나 활동에 참여하며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모든 부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자동차가 잘 달리듯, 사회도 저마다의 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 기반의 세계적 기업, 우수AMS(주)

우수AMS(주)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1983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변함없는 성장세를 증명하듯,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우수AMS(주) 공장에서는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이 식을 줄 몰랐다. 그 현장의 중심에서 창업주 전종인 전 대표에 이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김선우 대표이사를 만났다. 오로지 자동차만을 생각하며 현장을 누비는 그에게 이번 인터뷰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짧은 휴식을 얻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공장을 돌며 공정을 살필 때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리더였고, 대화를 나눌 때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즐기는 문화예술이 별로 없다’고 말할 때는 겸손한 어른의 모습이었으며, 우수AMS(주)의 미래를 말할 때는 누구보다 확신에 찬 눈빛을 보였다.

“우수AMS(주)는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며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앞으로 지역 인재들과 손잡고 미래를 함께 만들며, 기술의 단단함과 경영의 따뜻함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전동화 중심의 미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품질과 기술력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 기반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1 __ 우수AMS(주)와 함께하는 남송문학 페스티벌 ‘시를 낭송하는사회’ 현장
2 __ 우수AMS(주) 전경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문화예술의 힘

우수AMS(주)는 창립 초기부터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문화예술의 힘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경남메세나협회 설립 초기부터 함께하며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경남문인협회와 경남여류문인회 등 지역 예술단체와 매칭펀드를 맺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선우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이런 철학은 변함없이 이어졌으며, 지난 2022년부터 다시 경남메세나협회 부회장사를 맡으며 활동을 이어왔다. 경남메세나협회 초기에는 경남의 문화예술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그 뿌리를 통해 더 넓은 가지로 확장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이윤 창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과 함께 숨 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이어야 지속가능한 경영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의 인연도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지역과 사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를 위해

“문화예술은 거창하고 웅장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아닐까요?”

그렇다. 문화예술이 꼭 거창하고 웅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 조용한 재즈 음악을 듣거나 익숙한 올드 팝송을 흥얼거리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다. 틈틈이 문화예술 관련 서적을 읽기도 하는데, 책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의 숨겨진 이야기가 삶의 작은 싹표가 되어준다.

평소 여행을 즐기는 그에게 해외 박람회나 세미나는 일과 취미가 자연스럽게 맞닿는 순간이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시, 새로운 풍경을 둘러보며 자극과 영감을 받고 이를 다시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회사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기도 한다.

그는 평소 문화예술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경험을 많이 느꼈기에,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경험을 넓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과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회사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가장 먼저 기존의 술자리 중심 회식을 벗어나 영화, 연극, 오페라 관람이나 야구장 응원처럼 문화예술과 레저가 결합된 회식으로 변모시켰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문화예술을 즐길 여유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요즘에는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 많잖아요. 이런 작은 경험이 문화예술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터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을 보고, 그곳에서 삶의 활력까지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덕분에 이제 직원들이 회식을 기다리게 되었고, 세대 간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기계 중심의 산업이 가득한 창원국가산단, 그 속에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우수AMS(주), 그 회사를 이끄는 그와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그는 제조업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감성과 여유를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조직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정서적 균형과 공동체적 공감에 더욱 중요해졌다.

“정서적 균형과 공동체적 공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예술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요. 특히 경남에 뿌리내린 기업인만큼 지역 문화예술 토양이 풍성해질수록 기업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작은 역할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사회 공헌도 계속할 예정이다. 우수AMS(주)는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를 후원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이들을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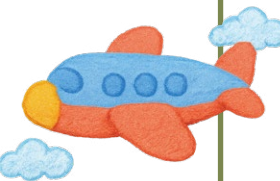
또한 MZ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사회 참여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은 활동에서 시작해 큰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 실천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라 믿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지역 공연이나 전시, 문화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다. 실천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이어가며, 일상 속에서 누구나 문화를 가까이할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후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경남을 꿈꾸며

시대는 점점 특별한 자기만의 색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색을 지니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시대일수록 문화예술은 더 다양한 색을 필요로 한다. 예술가의 색이 특별할수록, 우리 사회도 더 밝고 다채롭게 물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경남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치를 지켜나가는 기업인과 예술인 덕분에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그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당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신성델타테크(주) 구자천 회장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 이런 문구가 적힌 건물을 만난다면, 아마도 신성델타테크(주) 관련 회사일 확률이 높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건네는 이 말은 구자천 회장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문구다. 사람들에게 축복을 건네면서 기쁨을 느끼고 문화예술이 전하는 감동의 깊이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 구자천 회장을 만났다.

언제나 사랑받는 기업, 신성델타테크(주)

“이(E)는 ‘언제나’, 에스(S)는 ‘사랑받는’, 지(G)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에스지는 요즘 많이 쓰는 말이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받는 기업’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신성델타테크(주) 덕분에 참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ESG 경영 (환경 (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에 힘쓰고 있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쓰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단어를 구자천 회장은 ‘언제나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한다. ESG 경영이 주목받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ESG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성델타테크(주)는 1987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좋은 사람 좋은 회사’를 목표로 달려왔다. 기업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정직, 열정, 꿈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회사는 함께하는 회사, 행동하는 회사, 그 행동의 결과를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다. 임직원 모두 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을 보고 달려온 덕분에 신성델타테크(주)는 처음의 다짐처럼 좋은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급류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

“아버님께서 제재소를 운영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살기가 편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싶었습니다. 나무에 제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국의 산업 발전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거죠.”

부잣집 막내아들이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창업의 길로 뛰어든 거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하면

서 IMF나 리먼사태, 세계적인 경제 금융 위기에서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 화재로 인해 절망에 빠진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우여곡절 없이 성장한 기업이 있을 수 없듯이, 그 역시 절망 속에서도 ‘꿈 그리고 도전’이라는 사훈에 맞춰 끊임없이 노를 저었다.

“기업은 급류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뒤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임직원이 힘을 모아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도전정신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일하는 좋은 회사

신성델타테크(주)는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창원의 쇠소리 가득한 공단에서 지내다 보니 정서가 거칠어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는 임직원들이 정서적으로 모난 부분을 둥글게 다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창원공단은 대부분 중공업 장비나 탱크 등 대형 물자를 만들잖아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배 부품 등 크고 딱딱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이웃사랑 실천 등 부드러운 것을 통해 모난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성델타테크(주)는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 중이다. 지난 2008년부터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업인 ‘성년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한 부모 가정, 조손부모 가정 등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한번은 회사에서 지원한 아이가 자라서 우리 회사로 입사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군대에 갔는데,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원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바르게 잘 커 줘서 대견하기도 했어요.”

임직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온도계’도 회사를 대표하는 사랑 실천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찾아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기부금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웃 사랑 실천이 한번 이뤄질 때마다 1도씩 온도가 올라가는데, 임직원들은 사람의 온도인 36.5도를 목표로 하고 전사적으로는 물이 끓어오를 수 있는 100도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초기에는 온도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업부별로 복지단체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봉사를 펼치기도 하고 직원 가족들도 함께 봉사에 참여하기도 해요. 이렇게 직원들 모두 나눔의 기쁨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화합과 감동의 하모니,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

지난 5월 29일, 성산아트홀에서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가 개막해 3일간 감동의 하모니를 선보였다.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해외 팀과 전국에서 초청된 국내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합창으로 세계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남국제합창제를 가장 먼저 제안하고, 합창제가 막을 올릴 수 있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화합과 상생

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합창’을 경남의 문화예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소리가 모여 하나의 하모니로 완성되는 합창이야말로 경남을 하나로 만드는 대표 문화콘텐츠가 되기에 제격이었다. 그래서 기존에 열리던 코리아합창제를 국제합창제로 승격하고, 경상남도와 지역 기업인들의 도움을 받아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을 맡으며, 국제합창제가 취지에 맞게 잘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국제합창제의 품위를 지키면서, 동시에 지역 합창단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갔다. 덕분에 지역 합창단이 무대에 설 기회가 생겼고, 세계적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기회도 갖게 됐다.

“

“합창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직원들도 합창 공연을 보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남국제합창제를 계기로 경남의 문화예술 수준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

터무니없는 꿈일지라도, 계속 꿈꾸길

지난 1987년 창업에 도전했으나, 벌써 4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끊임없이 노를 저으며 달려왔지만, 되돌아보면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직도 꿈을 끈다. 누군가 그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는 지금도 ‘2050년에는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회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한다. 직원들에게도, 기업가들에게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어려운 문화예술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경남의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같다. 터무니없는 꿈일지라도, 계속 꿈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이루기 힘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다 보면 분명 이뤄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朴
鍾
漢

아인 박종한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으며

1970년 아인 박종한 선생은 손문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남명南冥 조식曹植 선생의 반구실천反軀實踐 사상을 바탕으로 현시대에 맞는 교육철학과 사상을 확립한 『오민교육』을 저술하여 대아중고등학교에서 펼쳐냄으로써 오민교육은 사학의 이정표가 되었다.

아인은 손문과 달리 백성의 성품을 고르게 하는 민성교육을 오민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으며, 민족, 민본, 민생을 거쳐 민복을 우리가 모두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단계로 설계한 것은 선진국의 척도가 복지국가 건설에 있음을 이미 인식한 교육사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인의 오민교육은 온 겨레의 성품을 바르게 하는 민성교육,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해 공동체의 단합과 사회평화를 실천하는 민족교육,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민본교육,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며 생활기술을 개발하는 민생교육,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에 이어 완성된 삶으로서 민복교육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차인들은 아인 박종한선생을 오성다도를 시작한 차인으로만 알기에 아인 박종한 선생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천학원과 대아중고등학교를 설립한 교육자로서의 아인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인 박종한의 탄생과 학창 시절

아인은 아버지 만암晩巖 박채규朴彩珪와 어머니 능성 구씨 사이에서 4남 5녀 중 차남으로 1925년 4월 8일 경남 삼천포 동리 72번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밀양으로 규정 공파이며 대제학을 지낸 박충원의 17세손이다.

삼천포국민학교(현재 삼천포초등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진주중앙국민학교(현재 진주초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한 뒤 1943년에 진주공립중학교(현재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아인은 진주길야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육당 최남선의 『조선역사』의 상고사편 ‘조선나라의 시초’를 읽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선 문화를 지닌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반진단’을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시작한다.



아인 박종한 선생 초상화

1944년 11월,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는 주요 거점인 부산항 시설 폭파 계획이 탄로 나서 부산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광복 후 풀려난다. 이후 서울대학교 상대에 입학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진주에 내려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학업을 그만둔다. 1954년 2월 23일, 손문의 영향을 받아 ‘조국의 통일과 자유는 아시아의 독립과 자유에 있다’는 신념으로 할아버지 박병집의 호인 ‘하천’을 빌어 재단법인 하천학원을 설립한다.

반진般震정신으로 다진 하천학원 대아 초·중고등학교의 설립

아인 박종한 선생은 해 돋는 나라 동방, 배달민족의 나라이며, 국조 단군왕검의 거룩한 다스림의 나라 ‘진나라로 돌아가자’라는 반진정신을 바탕으로 진주에서 야학을 운영하다가 1954년 2월 23일 재단법인 하천학원을 설립, 1955년 2월 14일 대아중학교 개교를 인가받는다. 1962년 10월 31일, 대아중학교 부설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장차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반진 구국 정신의 하천학원을 계획한다. 초등학교는 1968년 2월 28일 폐교의 운명을 맞게 되었지만 1966년, 30학급으로 대아고등학교를 인가받아 현재에 이르러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가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 극도로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 빠져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인은 한민족의 운명은 아시아의 운명과 같다고 굳게 믿었다. 좌우익의 싸움으로 한민족의 미래는 해결할 수 없으니, 조국의 자유와 통일, 아시아의 운명을 한 문제로 보고 이를 함께 해결하는 세계관을 지닌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대아’라는 이름의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아인이 내세운 건학 정신의 첫 항목이 ‘세계를 배우고 장래를 계획하라’라는 구절뿐만 아니라 교가에서 ‘통트는 아시아~’와 같은 구절이나 ‘아세아 연합학교 및 아세아 연합 학생회 결성을 제창함’과 같은 선언문에서도 조국의 미래와 한민족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생의 고민이 얼마나 깊고 앞서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인은 1968년 『대아학당의 교육』에서 건학 교육에 앞서 인간의 혼과 정과 청의를 배워 민족혼을 다시 일깨우는 민족혼교육, 듣고 보는 것보다 실천공행을 통한 노작교육, 가르치기보다는 알 수 있게끔 이끄는 산파적 역할을 강조한 자각자학교육, 개인의 천분을 살려 인재양성에 앞장선 개성존중교육, 편파적이고 협량한 인간의 폐를 없애기 위한 전인교육, 교사시설이나 교안 그리고 교수법 계발을 통한

능률교육, 자연적 인간을 이상적 인간으로 향상 시키는 자모사제교육, 화랑숙교육,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교육 등을 교육목표와 실천 계획으로 세웠다.

① 생활지도관 화랑숙 개관 (1967)

우리나라 최초의 생활지도 교육 사례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며 수련·실천·운동을 실현하는 교육 공간이었다. 자주독립과 자립정체를 목표로 했으며, 개관 1년 만에 문교부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전국에 보급되었다.

② 대아교육연구소 및 대아민속예술연구소 설치

선진국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했다. 민속예술연구소는 외래문화 추종을 경계하며 민족 고유의 예술과 정신을 계승·현대화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③ 우수 교사 초빙과 장학제도 운영

장학금 제도 도입과 교사 처우 개선, 전문과목 및 논문 심사로 우수 교사를 유치했다. 이로 인해 대아중학교는 각 학교의 수석 입학생이 몰렸고, 대입 진학률도 높았다. 대아 출신 교사는 타 학교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④ 전국 최초 야간 자율학습 실시

대아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른 학교로 확산되었다.

⑤ 관악대 창단 (1967)

전인교육을 목표로 국산 악기로 구성된 32인조 관악대를 창단. 이는 1961년 대아중학교 관악대의 연장선이며, 예술교육을 통한 인격 함양의 일환이었다.

⑥ 모현단 교육

단군부터 백산 안희제까지 28명의 현자를 모신 제단을 설치하여 스승을 공경하고 본받도록 했다. 모든 행사는 차를 올리고 향을 피우며 모현단 예를 올린 후 진행되었다.

⑦ 다양한 교육 실천 사례

일기와 자습지 쓰기, 반지문 설치, 13m 규모의 임진계사난 수호신상 제작, 충무공 백의종군 동상 건립 및 행군 등 아인 교육사상은 해마다 구체화되고 실천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⑧ 오민교육의 실천

민성정신 다례·조림·청소·예절교육을 통해 일상 속 실천교육 전개. 학생들은 성지나 사당을 청소하며 도산 안창호의 ‘청소는 독립운동’ 정신을 실천했고, 교장실에서는 다례교육도 함

께 진행되었다.

민족정신 충무공 추모 행군, 창렬사 참배, 박물관 현장교육 등을 통해 조상의 얼을 계승하고 역사 속 민족 정신을 학습했다.

민본정신 자치활동과 자율학습을 통해 자유·책임·민주주의의 시민의식을 기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민생정신 과학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관찰·실험과 더불어, 노작과 생산교육을 통한 실천 중심의 학습을 강조했다.

민복정신 음악·연극·미술·임해교육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예술을 통한 삶의 여유와 기백을 키웠다.

⑨ ‘오성다도’ - 최초의 학교 다도 인성교육 (1969)

청소년기의 정서적 혼란을 순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인성교육으로서 다도 수업을 시작했다. 남명의 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의간’을 사용하며 존중과 신의를 실천하게 했다. 이 다도교육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서울무학여고 등에서도 시행되었으며, 문교부 장학실이 교수안을 요청할 정도로 모범 사례가 되었다. 1982년에는 교육부 주도로 다도 지도 요약집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한류 개척자 아인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날 후학들의 눈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아인 박종한 선생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보고 듣고 밝혀 객관화의 담금질을 통해 역사 속 한 페이지로 올려놓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이다.

아인은 이상주의자이자 인본주의자요, 식민시대와 전쟁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쫓던 희망을 노래한 교육자이며 민속학자이며 차인이었다.

① 아인의 다도정신茶道情神

아인의 다도정신은 조신調身, 조식調息, 조심調心의 선도식仙道式 수행법이다. 조신調身은 앉은 자세를 고르게 하는 법으로 바른 자세는 기혈의 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올바른 정신과 선한 마음을 함양하게 한다. 조식調息은 숨을 고르는 법으로써 숨을 헤아리며 의식을 고르는 수식관數息觀과 의식을 호흡에 따라 고르는 수식관隨息觀이 있다. 또한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서 막힌 기를 뚫는 치병호흡治病呼吸과 단전의 원기를 몸 전체로 퍼지게 하여 신장의 물기운과 심장의 불기운이 서로 상생 하도록 하면 진액이 만들어져 입에서 맑고 윤택한 침이 나오게 하는 단전 호흡법이 있다.조심調心은 생각하는 마음을 고른다는 뜻으로 불교의 간화선과 같은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좌선에 아무런 효과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좌선에 들어갈 때는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서원을 세우고 일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정신과 기운이 골라져 마침내 식망현진息妄現眞 수승화강水昇火降이 되어 적적성성寂寂惺惺의 진경에 들어가게 된다.

② 차의 날 선포와 한국차인연합회 창립

1978년에는 아인요亞人窯를 설립하여 옛 도요지 연구와 함께 차 도구 재현에도 노력하는 한편 다음 해인 1979년 8월엔 뜻이 맞는 차 동호인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한국차인연합회’를 창립한다. 아인선생은 차인들과 함께 1979년에 초의선사의 오랜 거처인 해남 대흥사 일지암一枝庵 유적을 찾아 다시 복원하는데 큰 힘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1980년에는 『다도茶道』와 『한국차생활사韓國의茶生活史』란 소책자를 저술하였다. 1981년 5월 25일에 진주 축석루에서 역사적인‘차의 날’을 선포했으며 하동 화개동 차시배지에 ‘대림공추원비’도 세우는 데도 앞장섰다.

③ 남명집 발간

아인선생은 1977년 8월 10일 경남학생체육관에서 실천 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을 기리는 추모제를 올리고 남명제를 창설했다. 제1회 남명제는 대아중고등학교의 두류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학술강연회를 열고 아인은 남명의 경의정신을 경남사학의 연원임을 선언하게 한다. 남명학 연구를 위해 1978년 『남명집』을 발간하였다. 아인이 남명선생을 찬한 글에서 “알지 못할까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한 말에서 남명의 실천의지를 본받았으며 내명자경內明者敬 외단자의外斷者義(속을 닦아 밝아지는 것을 경이라 하고 밝음으로 겉을 다스리는 것을 의라 한다)



아인 박종한 선생의 제자 최성철, 김장호가 쓴 글을 족자 형태로 제작한 추모사

의 글에서 탄 경의정신을 교육사상의 근본으로 삼아 오민교육으로 발전시켰다.

④ 역사로부터 외면당하던 기층 전통문화의 연구『민학회』

농민이나 노비들의 기층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에 민중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자고 뜻을 모아 아인 박종한, 조자용, 이경노, 심우성, 신영훈, 김종규 등과 함께 1970년 민학회民學會를 발족했다. 『민속학Folkism』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맺음말

교육의 숭고함은 인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오민교육은 인본주의자 아인의 뼈를 드러낸 것이요, 박물관 개관, 도자기 연구나 민학회 결성 등 전통 민속에 관한 연구는 그의 속살을 드러낸 것이요, 차에 대한 열정과 업적은 그의 일상사 그 자체이다. <아인박종한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는 2025년 5월 17일 행사에서 오민교육 사상가인 아인을 기림으로써 우리 모두가 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며, 민속학자 아인의 민중 전통문화 사랑을 본보기 삼아 학문적 편협함을 뛰어넘으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아인이 가르치신 오성다도를 통해 주변의 많은 분들과 교류하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벗님들 오늘도 우리집에 좋은차 있으니 차 한잔 나누시게?”라는 우호의 시간을 가지려 함이다.



Own The Moment

: Collect, Transform, Experience

제12회 경남국제아트페어

2025. 9. 11. - 9. 14

창원컨벤션센터(CECO)

www.giaf.kr

한 점의 그림은 분명 한순간만을 포착한다. 제목도 길어봐야 두어 단어가 전부, 앞뒤 사정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영상이 혼란 시대인데, 그림 한 점이 발길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는다. 그리고는 그림 속 한순간과 그 너머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를 건넨다. 어떤 특정 '순간'이 담겨 있는 한 장의 그림이 건네는 끝없는 서사, 그 앞에 서면 그 깊고 무한한 이야기는 오로지 내 것이 된다. 그림의 예술성은 이 '한순간'의 무한한 확장성에 있다. 그림의 한순간이 '나'와 '당신'과 만나 어떤 이야기로, 어떤 심연으로 이어질까? 경남에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남국제아트페어(GIAF)'다.

예술을 통한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경남국제아트페어(GIAF)가 올해도 역시 문을 연다. 오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Own The Moment : Collect, Transform, Experience』라는 주제로 제1, 2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예술의 찰나를 포착하고, 관람자와의 교감을 통해 그 순간을 확장하는 예술적 여정을 제안한다.'는 경남국제아트페어(GIAF)의 모토답게 이곳에서 체험하게 될 예술적 여정에 마음이 먼저 설렌다.

2025년 경남국제아트페어(GIAF)에는 그 어느 해보다 경남의 정체성이 깊게 표출된다.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지역인 경남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시회 주제에 맞는 세 개의 섹션이 마련되는데, 경남이라는 공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개의 시간대로 나누고, 이들 시공간이 어떻게 예술이라는 언어와 교차해 표현됐는지를 작품들을 통해 보여준다.

SECTION I | Memory To Moment

첫 번째 섹션 <Memory To Moment>는 '과거'의 기억이다. 경남은 산업화 시기를 살아낸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깃들어 있는 도시, 그 정체성을 담아낸 섹션이다. 노동자들의 기억을 예술로 기록한 작품들과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산업의 흔적이 작품들에 녹아있다. 그림 앞에 선 관람객들은 이 도시가 간직한 과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역사는 기록이지만 예술은 그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다. 그렇게 다시 되살아나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감동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 자부심이 되고 공감이 된다.

SECTION II | Steel & Soul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은 <Steel & Soul>이다. 차갑디 차가운 철(Steel)에게서 영혼(Soul)이 느껴진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중공업과 항공산업, 조선산업, 기계산업의 심장부인 경남의 오늘을 표현하는 데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낱말이 있을까? 특히나 차갑고 단단한 산업 소재가 어떻게 예술적 감성과 조우하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이 이 전시에 담겨 있다. 찬찬히 이 두 번째 섹션에 머물다 보면, '물질에도 감정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불쑥 떠오를 지도 모르겠다. 또한 <Steel & Soul>이라는 가장 아이러니한 두 단어 조합이 가장 뜨겁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SECTION III | From Machine To Muse

마지막 세 번째 섹션 <From Machine To Muse>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뮤즈(Muse)라고 하면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존재를 말한다.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이 뮤즈가 되기도 하고, 가정환경과 부모님, 어릴 적 고향의 기억들이 예술가에게는 뮤즈가 된다. 당연히 경남에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삶을 살아낸 예술가들은 가장 경남다운 예술 작업들을 해낼 수 있다. '경남'에서 '경남'의 과거와 현재를 살아낸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섹션이다. 특히나 이곳을 살아낸 젊은 청년들의 텍스트, 비평, 회화, 조형 등 다채로운 매체를 통한 다양한 작업들이 전시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섹션은 더욱 특별하다. 영감이 머무는 문화산업도시로서의 경남의 내일, 경남의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다.

올해 경남국제아트페어(GIAF)에도 빠질 수 없는 특별전이 3곳이나 마련된다. 첫 번째 특별전은 <환대의 방 : 웰컴 VIP (Well Communication)>이다. 인간의 감정과 도시민의 정체성과 관계성을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은화 작가 초대전이다. 웰컴은, 환영한다는 영어 단어와 발음이 같지만, Well Communication, 즉 소통이 잘된다는 뜻으로 페어를 찾는 모두를 VIP로 환대한다는 의미와 예술을 매개로 잘 소통하고 연결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이 담겼다.

두 번째 특별전은, 국제 아트페어로서 문화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곳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러시아 미술'이 관객을 만난다. 더불어, 경남 문화예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고민을 주제로 던져주는 경남미술협회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이 마지막 세 번째로 마련된다.

이외에도 경남국제아트페어(GIAF)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특별 코너들이 마련돼 있다. 예술과 사회를 잇는 담론의 장이 될 <아트토크>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예술의 순간을 경험하도록 만든 <키즈라운지>, 동양의 미학과 자연주의를 담은 음식과 연출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감각의 광장 '오우가'>, 여기에 청년작가들이 창원의 전통주 주조사 맑은 내일과 협업한 프로젝트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코컬 투어 코스인 ARTnGo (아트앤고)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풍성하다.

산업의 시간 위에 쌓인 경남의 예술을 만나는 시간, 오늘 이곳을 살아내는 이들의 이야기를 감성으로 느끼며, 또 그 속에서 앞으로를 기대하게 하는 예술, 2025 경남국제아트페어(GIAF)에서 예술로 만나게 될 경남의 찰나, 그리고 그 속의 당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OWN THE MOMENT : Collect, Transform, Experience
제12회 경남국제아트페어
THE 12TH GYEONGNAM INTERNATIONAL ART FAIR
2025. 9. 11. - 9. 14. 창원컨벤션센터(CECO)



관람시간 | Opening Hours
9. 11.(Thu) 14:00 ~ 19:00 (VIP Preview)
9. 12.(Fri) ~ 13.(Sat) 11:00 ~ 19:00
9. 14.(Sun) 11:00 ~ 17:00
GIAF 2025 사무국 | GIAF 2025 Secretariat
T. 055-223-2670 F. 055-603-2859 E. giaf2025@naver.com



주최 | 경상남도 문화재단 후원 | GNTD 경남문화재단 | (사)경상남도미술협회 | (주)아트인포메이션

▼ 2024년 제11회 경남국제아트페어 현장



물가에 해 다 지니 낚시 드리러 혼자 간다
소매엔 산빛이요 옷자락엔 물빛이라

윤선도, 「어부사시사」 中



Photo by 김정호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원지부 사무국장
아카데미 사진아 놀자 회장

예술가들의 손길로 매 순간 새로운 고성청년예술촌

8년간 방치돼 있던 고성중학교 삼산분교가 청년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변신한 건 지난 2024년 11월이다. 청년 공간 조성으로 젊은 생활 인구 유입을 꾀하며 고성군이 주최하고 주식회사 땡스클레이가 주관한 고성청년예술촌이 바로 이곳이다. 문을 열 때만 해도 썰렁하기만 하던 공간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을 누리고 즐기면서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 고성군 삼산면 미룡2길 75-21

📷 @gs_young_art_space

고성 끝자락
삼산면에
청년예술촌이
생겼어요

드넓게 펼쳐진 산과 바다를 보면서 삼산면에 들어서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청년예술촌이 어디 있단 말이지?’ 장난기 가득한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 삼산초등학교 뒤에 드디어 목적지가 환하게 얼굴을 보여준다. 새하얀 건물이 마치 열린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도화지 같다.

고성청년예술촌을 주관해 공간을 만든 땡스클레이 이재림 대표는 “최대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게 콘셉트로 하얀 캔버스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라며 “환하고 밝은 이미지는 가져가고 캔버스 느낌으로 가면 여기 오는 청년들, 예술가들이 실험적인 것들 다양한 창작활동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싶었어요.”라고 말했다.

지난해 1기 입주작가 선정 후 올해는 2기 작가들도 모집을 마쳤다. 1기 작가들 중 원하는 작가들은 계속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는 다양하게 상주 작가부터 비상주 작가, 초청 작가까지 여러 형태로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고성청년예술촌
둘러보기

고성청년예술촌에 처음 들어오면 새하얀 도화지 같은 건물과 그 옆에 우뚝 선 소나무, 그리고 너른 운동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건물 옆의 소나무는 공사 초기에는 베어버릴 예정이었으나 이 공간을 추억하기 위해 그대로 살려 두었다고 한다. 운동장이었던 공간은 쉼터이자 포토존, 야외 정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동네가 아쉬운 게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어요. 고성청년예술촌만 보러 오기는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데 1층 끝에 카페를 만들고 바깥쪽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쉼터나 포토존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이재림 대표는 말했다.

건물 1층은 입주 작가들의 작업 스튜디오와 사무실, 다목적 공간이 있다. 다목적 공간에서는 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나 삼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2층에는 전시장과 작가들의 스튜디오가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 교실이었던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작가들의 작업 공간들과 전시장으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상상이
현실이 될 공간

메인 건물 뒤에는 입주 작가들의 숙소가 있다. 숙소 옆에도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곳은 작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마나 물레, 3D 프린터 등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재림 대표는 “작가들 뿐만 아니라 고성청년예술촌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체험도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변화해 갈 고성청년예술촌은 어떤 모습일까? 이 공간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올 때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다른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란 데 있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여러 체험도 가능하다.

“체험과 전시를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예술가들이 참여했던 전시의 주제로 체험을 진행하기도 해요. 퍼포먼스 성으로 작가가 직접 작품을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상 중이고요.”라고 이재림 대표는 말했다. 고성청년예술촌은 8월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새로운 전시를 준비 중이다. 그때는 또 이곳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9월 전시가 기다려진다.



✿ 고성청년예술촌 순간네컷 ✿



마산역 로컬문화예술플랫폼 이안아트홀

사람이 떠난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들게 할 수는 없을까? 사람들을 끌어모을 방법은 무엇일까? 이 오랜 고민의 해답을 로컬문화에서 찾고자 애쓰는 이들이 많다.

지난 6월, 마산역사 2층이 모처럼 복직했다. 입구에서 방문객을 반긴 이름은, 마산역 로컬문화예술플랫폼 이안아트홀. 동마산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린 곳이다. 세월의 더께를 입고 자꾸 쇠퇴해 가는 듯한 주변 분위기와는 다르게 뭔가 심상찮은 새로운 설렘이 이곳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 마산의 문화를 살려 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싶다는 뜻을 품고 20여 명이 모였다.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힙’한 곳, ‘핫플’로 다시 살아난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는 시간, 20대부터 4, 50대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과연 이들 속에서 이곳 ‘마산’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특별한 모습으로 창조될까?

공연

기획 및 초대 공연
창작 공연
공연장 대관

전시

기획 및 초대전
웹툰 및 문화콘텐츠
기획·전시

인문학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인문학 콘서트
정기 독서토론회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지원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유오피스 제공

마산은, 한때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힐 만큼 황금기를 누렸던 도시이다. 1970년대 19만 명이던 인구가 1975년에는 3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1985년에는 44만 8천 명, 1990년에는 49만 3천 명을 기록하며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금 통합 창원시 인구가 100만 명을 상회하는걸 감안하면, 마산 단독으로만 이 정도였으니 엄청난 인구수이다. 그야말로 부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도시였다.

그리고 그 시절 마산의 관문이 바로 이곳 ‘마산역’이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고 그 시절 가장 발 빠르게 다양한 문화들이 전파되던 중심지였다.

사람 역시 빛나는 청년기를 지나 나이 들어 저절로 노쇠해지듯이 도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지만 젊어질 수 있다. 젊게 살 수 있다. 도시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사람들은 ‘힙’한 곳, ‘독특’한 뭔가가 있는 곳은 일부러 찾아간다. 그러니 문화예술을 매개로 젊은 사람은 물론 모든 세대가 두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

까, 옛날 그 시절 마산역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관문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이 ‘마산’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고 듣고 즐기고 만끽하기 위해 찾는 관문, 문화예술이 담긴 새로운 관문이 열린 셈이다.

마련된 공간은 이미 충분히 완벽하다. 깨끗하게 단장한 옛 건물은 공연장으로도 훌륭하다. 높은 실내 천장이 음악의 울림을 깊게 만들고, 다양하게 기획하고 창작한 공연을 직접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다. 전시 공간 역시 넉넉하다. 목재의 질감이 살아 있는 내부, 아치형의 큰 창, 고풍스러운 건물 디자인이 작품에 멋스러움을 더한다. 100석 규모의 넉넉한 공간은 북 콘서트를 포함한 인문학 강좌와 독서토론회,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꾸며지기도 한다. 또한 특별히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편안하게 콘텐츠 개발에 힘쓸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전시, 공연, 각종 프로그램 개설은 물론 창작지원 공간으로까지 다양하게 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곳, 넓은 포용력과 열린 가능성을 지닌 특별한 무대가 바로 ‘마산역 로컬문화예술플랫폼 이안아트홀’이다. 작품을 선보이거나 함께 모여 연습할 곳이 필요한 예술인들이



늘다 보면 자연히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핫플’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곳을 맡아 운영하는 사회협동조합 ‘이안프렌즈’는 이미 이 분야에서는 검증된 곳이다. 멋진 기획력이 돋보이는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사람의 노인은 작은 도서관 하나와 같다’는 말이 있다. 시간이 쌓아놓은 ‘연륜’이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 그 만큼 소중하다.

옛 도심은 마치 한 사람의 노인과 같다. 과거 찬란했던 시간 동안 쌓인 그곳만의 문화와 나뉘는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다. 게다가 과거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옛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더욱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관문이 되겠다니,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산역을 거점으로 새롭게 탄생한 로컬문화예술플랫폼 이안아트홀, 이곳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산역 로컬문화예술플랫폼 이안아트홀

☎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마산역 2층

📸 @ianarthall



Mecenat News

2025 경남메세나협회 정기총회 및 임시이사회 개최

글 메세나 사진 Ocean



2024년 202개 팀 결연 성과...누적 결연 2,176개 팀 달성

협회는 2024년도 사업 보고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202개 팀이 결연을 이루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지정기탁을 포함한 후원금 약 38억 원이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결연은 총 2,176개 팀, 누적 지원금은 385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경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메세나...7개 시군 신규 참여

2025년도에는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거제시, 밀양시, 양산시, 산청군, 함안군, 함양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협회는 이를 통해 경남 전역에 걸쳐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며,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올해 협회는 기업과 예술단체 210개 팀 이상 결연을 목표로 삼았으며,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 청년예술인 및 장애인 예술인 지원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 메세나를 이끌어갈 새 임원진 선임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임원 선임도 이루어졌다. 경남스틸㈜ 최석우



대표이사과 (주)금아하이드파워 김장주 회장이 이사로 새롭게 합류하여 협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이로써 2025년도 경남메세나협회 임원진은 회장 1명, 부회장 11명, 감사 2명, 이사 12명, 고문 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경남 지역의 메세나 활동을 더욱 공고히 이끌어갈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 4월에는 경남메세나협회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BNK경남은행 김태한 은행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생태계 구축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태한 회장은 “기업과 예술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메세나의 본질”이라며 “지역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원사 및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반의 ESG 경영 컨설팅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예술인 및 장애인예술인 지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 등 포용적 예술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Mecenat News

2025 경남메세나 예술단체 워크숍 실시

글 사진 메세나

올해도 179개 중소기업과 167개 예술단체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다. (사)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5월 27일(화),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2025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예술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기업과 예술, 179개사-167개 단체 결연

경남메세나협회는 지난 4월, ‘2025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179개사와 예술단체 167개 팀의 결연을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한 금액만큼 협회가 매칭펀드 형태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협회는 매년 워크숍을 통해 예술단체에 사업 안내, 협업 가이드, 지원금 집행·정산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예술단체 자생력 위한 실질적 강연 마련

이날 워크숍에서는 상아팩토리 이상아 대표가 특별강연자로 나서, ‘예술단체 자생력 강화와 문화예술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현장감 있는 사례와 실천 방안을 제시해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에서 지방보조금 집행 지침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사무국은 매칭펀드 사업 전반, 지원금 운영 지침 및 정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실시했다.

예술지원 확대와 지역문화 생태계 확산 기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석수근 전무는 “올해는 거제, 밀양, 양산, 산청, 하동, 함안, 함양 등 7개 시군이 매칭펀드 사업에 새롭게 참여했다”며, “경남 전역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메세나협회는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예술지원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배포된 설명 자료와 관련 서식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gnmecenat.or.kr) ‘열린공간’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운영관련 서식 및 가이드북 바로가기



경남메세나협회 후원 제43회 경상남도연극제

글 메세나 사진 경상남도 연극제



‘연극은 인간이다’를 슬로건으로 한 제43회 경상남도연극제가 4월 1일 폐막식을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도내 12개 지부 14개 극단이 참여한 이번 연극제는 거창문화센터 등에서

3,300여 명의 관객과 함께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상은 창원 극단 미소의 <대찬 이발소> (장종도 작·연출)가 수상했으며, 이 작품은 7월 인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에 경남 대표로 출전한다. 개인에게 주는 연기대상은 <대찬 이발소>의 천영훈과 진주 극단 현장 <반추>의 황윤희가 각각 수상했다.

이번 연극제는 경남메세나협회가 2012년부터 13년째 후원해 온 지역 대표 문화 예술 축제로, 연극 활성화와 예술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제44회 연극제는 내년 밀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남메세나협회 - 밀양예총 ‘메세나 확산’ 업무협약 체결

글 사진 메세나



경남메세나협회와 밀양예총은 지난 7월 9일(수), 기업의 ESG경영 및 문화예술 상생·발전을 위한 메세나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남메세나협회 석수근 전무와 밀양예총 김현봉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간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현, 기업의 ESG경영 및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 문화경쟁력 강화와 밀양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경남메세나협회 석수근 전무는 “밀양 지역 메세나 활성화를 위해 밀양시 소재 기업 및 예술단체 발굴과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예총 김현봉 지회장은 “이번 협력이 밀양의 문화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URN

운영시기
2025. 5 ~ 기금소진 시까지

접수방법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mecenat.or.kr

문의
02-784-0952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 캠페인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공연, 전시, 도서 등 문화예술을 선물하세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1:1 매칭, 최대 300만 원 지원

① 트랙. 함께하는 문화선물 공연, 전시 및 문화행사 선물	② 트랙. 손에 잡히는 문화선물 도서, 음반 선물
참여자격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기업(법인에 한함)	
지원범위 ① 문화예술 관련 공연 및 전시 티켓 ② 예술단체(인) 초청을 통한 문화접대 프로그램 진행 시 공연·출연료 일부	① 국내 작가의 문학·인문·예술도서 (소설, 시, 에세이 등) ② 국내 아티스트의 음반

문화기업업무추진비란?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고객 등에게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 등의 티켓이나 도서, 음반, 미술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는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을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선물은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고 직원들의 워라벨에 기여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빛을 품은 미술관

강미선

보다예술교육연구소 / 교육학박사

얼마 전 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프로필 사진이 애니메이션 효과로 꾸며져 있었다. 낮익은 그림 풍이 곧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릴 적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한 나는 자연스럽게 그림하고 연결되어 전 공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깨달음과 배움으로 내면이 성장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의 아이들과 함께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작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즐겨보았고,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브리의 팬이다.

지브리 스타일을 프로필 사진으로 내건 지인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실망은 컸었다. 텍스트를 입력만 하면 딱딱 만들어내는 AI 기술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타 브랜드의 명성을 쉽게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예술가 자신이 예술적 비전의 풍요로움을 위해 창작의 고통과 노력을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심볼(Symbol)과 로고(Logotype)까지도 AI로 만들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 창작 활동과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오래전에도 기술이 예술을 위협하는 위기가 있었으니 현실 세계를 그림보다 더 정확하게

재현하는 사진 기술 등장은 미술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종교화와 초상화에 대한 주문으로 안정화를 이루었던 화가들의 좋은 시절은 19세기에 이르러 무너지게 되면서 그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 화가들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 그림의 존재와 뿌리를 뒤흔들어놓았던 기계술은 아이러니하게도 화가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폭도 넓혀주었으니 소멸 위기는 또 다른 새로운 탄생을 불러오는 신평탄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839년 사진의 등장은 인상주의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면서 전통적 회화기법을 거부하게 되고 빛과 색채의 순간적인 변화가 화가들의 관심사로 이어지며 화가 자신의 감정도 표현의 대상이 되고 중시하게 되는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렸다. 이 시기의 대표적 화가는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이다. 모네는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전통 기법을 거부하고 자연의 빛과 색채를 중시하였다. 날씨와 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색과 형태의 순간의 상황을 알아보고 작품 속에 응용하여 당시의 미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인상주의라는 말의 어원도 ‘양대광당展’(Salon des Independants)에 처음 선보인 모네의 그림 <인상, 해돋이>에서 비평가 루

▼ 프랑스 파리 오르세미술관



클로드 모네, <루앙 대성당> 연작, 1892-1894, Oil on canvas, 프랑스 오르세미술관

이 르루아(Louis Leroy, 1812~1885)는 스케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인상주의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모네와 함께 인상파의 중심인물이었던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등은 이 단어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건 아마도 너무 평범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보다 미술이 추구하는 타협하지 않는 순수함이 반영되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 생각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빛의 변화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대상의 형태 파악이 힘들고 무게감도 떨어진다는 인상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화가들은 화풍을 달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네는 처음과 끝을 자유스러운 붓질과 함께 대담하고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겪었던 시각적 경험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빛의 아름다운 조화와 흥미로운 색의 조합은 인상주의를 끝내 지켜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인상파의 아버지라는 별칭도 갖게 되었다.

오늘은 모네의 다양한 그림 중에서 고딕양식으로 프랑스 문화와 역사를 대표하는 <루앙 대성당> 연작을 소개하고자 한다. 루앙 대성당은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2시간을 달리다 보면 노르망디 주의 루앙이라는 도시에 있다. 모네는 1892년부터 1893년까지 루앙 대성당을 1년 중 다른 시기와 다른 시간 여

러 차례 방문하여 30여 점의 연작을 완성하였다.

<루앙 대성당> 연작은 세계 각국의 미술관과 개인이 1, 2점씩 소장 중인데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만 다섯 점의 연작이 소장, 전시되고 있다. 오르세미술관은 루브르박물관에서 센강이 흐르고 있는 풍네프다리를 건너면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에펠탑이 위치한 파리 7구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르세 미술관은 국립박물관으로 인상주의와 탈인상주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원래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사람들을 도심 안쪽까지 안내하기 위해 지은 옛 오르세 기차역이었다. 정류장 길이가 짧은 한계와 객차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더는 기차역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 1939년에 문을 닫았다.

1970년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1926~2020)의 지시로 재개발된 오르세 역은 1986년 미술관으로 개관되었다.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큰 미술관중 하나이며 루브르 박물관과 현대미술관이 있는 퐁피두센터와 함께 파리의 3대 미술관으로 파리 명소가 되었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늘 붐비는 곳이다. 루앙 대성당의 빛의 화려함에 매료되고 싶다면 오르세미술관을 방문하길 권한다.

다섯 점이 걸려있는 연작을 관람할 때는 가까이보다 최대한 뒤에서 멀리 보는 것이 전체적 윤곽이 더욱 선명해짐을 느낄 것이다. 그림 속 빛은 시야를 사로잡으며 성당 각각의 느낌은 정감 있고 송고하며 따뜻한 느낌마저 든다. 마지막은 몽환적인 아름다움에 왜 이 그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는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다.

창작의 과정은 험난하다. 노력과 열정 그리고 용기가 적절하게 혼합되었을 때 창작의 내적 성장은 이루어진다. 세상은 AI 창작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줄 알지만, 사실 수많은 예술가의 작품이 바탕인 된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결국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인공지능은 확률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AI가 해석하여 만든 이미지는 아직 어색함이 있다. 인간의 감성을 따르지 못하는 기계적인 해석과 구성들이 눈에 들어온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AI가 지브리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삶에 대한 모욕이라며 역박다’라고 했다. 사진의 등장으로 더는 사실적인 그림들이 관람객들의 눈에서 멀어졌을 때 빛과 색채를 연구해서 영원히 남을 명작들을 우리에게 선물한 클로드 모네와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한 애환과 열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성적인 확률들의 건조함은 인간의 감성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Yun, Il-Sang

2025년, 윤이상 선생의 타계 30주기를 맞으며

다시금 그의 음악과 삶을 되새깁니다.

그분의 존재는 단지 한 세기의 예술가로서 남은 것이 아니라,
시대의 상처와 고통을 ‘소리’로 이끈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음악이 한 개인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의
심연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윤이상 선생은 자신의 생애로 웅변했습니다.



Written by 이주은
피아니스트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입상자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음악 속에 흐르는 기억의 강

윤이상 선생 타계 30주년에 부쳐

2010년, 나는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참가하며 그의 음악 세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특히 조부모께서 통영 출신이셨기에 그 뿌리가 되는 도시에서 열리는 이 권위 있는 콩쿠르에 참여한 일은 단순한 경연 이상의 감회와 상징성을 지녔다. 고향의 정서, 조국의 소리, 그리고 윤이상이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흔적이 포개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연주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깊은 감동과 책임을 느꼈다.

콩쿠르를 준비하며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과정은 음악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성장적인 시간이었다. 윤이상의 음악은 일반적인 현대음악과도, 고전 레퍼토리와의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음과 음 사이의 ‘침묵’ 속에 깃든 서사, 균형 잡힌 긴장과 해방의 구조, 무엇보다 한국의 전통 리듬과 5음음계, 전통악기의 음색에서 비롯된 질감들이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분명 유럽의 음악 어법에 존재하면서도, 뚜렷하게 동양적 영혼을 품은 음악이었다.

독일에서 생활하며 놀랍게도 윤이상 선생이 한국보다 독일에서 더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한국 출신 작곡가라는 의미를 넘어서 유럽 현대음악사의 중요한 좌표로 기능하고 있었다. 수많은 독일 음악가들과 비평가들이 그의 작품 세계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작곡가가 세계 음악사의 중심에서 깊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더욱이 한국에서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와 같은 뜻깊은 무대를 통해 그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고 전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어, 이제 우리 사회도 점차 그를 온전히 품고 세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윤이상 선생은 1917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분단, 냉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예술의 언어로 시대와 맞섰던 인물이다. 그의 대표작인 오페라 ‘침정’, ‘화염 속의 천사’, ‘예악’, ‘첼로 협주곡’ 등은 음악적인 실험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민족의 정체성, 나아가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를 아우르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 특히 동백림



사건으로 조국의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은 음악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양심의 발화’임을 증명한다.

윤이상 선생의 작품을 연주할 때마다 나는 무형의 역사와 대화하는 감각을 경험한다. 그의 음악 속 침묵은 공허한 정적이 아니라 치유의 숨결이며 성찰의 울림이다. 이는 연주자의 내면을 고요히 흔들고 청중의 의식을 깨우는 일종의 사유의 공간이 된다. 이처럼 윤이상은 음표보다 더 많은 것을 작곡한 예술가였다. 그는 사상의 작곡가였고, 통합의 작곡가였으며, 화해의 미래를 노래한 작곡가다.

30년이 흐른 지금, 윤이상 선생의 음악은 여전히 생명력 있게 연주되며 국경과 세대를 넘어 새로운 청중과 만나는 중이다. 그의 음악은 단지 ‘어려운 현대음악’이 아니라, 깊은 생의 본질을 응시하는 ‘인간의 음악’이다. 나는 교육 현장과 연주 무대에서 후학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며 그들이 그의 작품을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대하길 바란다.

예술은 때론 시대의 상처를 꿰뚫는 바늘이 되기도 한다. 윤이상 선생은 분단된 조국과 자신이 사랑한 조국 사이에서 예술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그의 음악을 통해 ‘화해’의 가능성을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다.

윤이상 선생은 나에게 예술이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임을 각인시켜주었다. 그분의 음악을 연주하는 시간은 곧 예술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묻고 답하는 진지한 사유의 시간이다.

그분의 3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음악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오래도록 잔향처럼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 울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창조적 이들, 사려 깊은 리더들, 그리고 공동체를 조용히 지탱해 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따뜻하고 단단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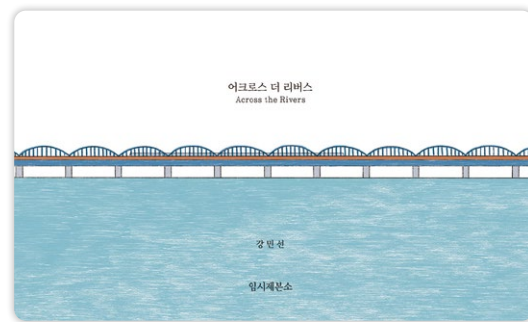
Player's Playlist

이제는 전문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일상이 반가운 변화이지만, 때때로 넘치는 콘텐츠 속에서 지치기도 한다. 이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는 노래, 영화, 책 등을 추천받았다. 그들의 콘텐츠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자.

정은경 문화기획자

마산에서 태어나 창원에서 자라 30대를 지역에서 문화기획자 '올랄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 강민석 작가 [어크로스 더 리버스]



지난해 여름휴가 기간이었다. 한강을 건너며 기차 안에서 읽었던 강민석 작가님의 [어크로스 더 리버스]다. 작가님의 블로그 글 중에 “제목에 정할 때도 ‘어크로스’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 사이를 가로지르는 행위와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거든요.” 라는 글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책을 보는 동안 상상했던 순간이 일치했다. 그리고 “이쪽저쪽 한강을 가로지르면서 저 자신도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면서 어떤 답을 찾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리를 다 건너고 난 뒤의 제가 지금과 무엇이 달라져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게 또 동력이 되어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에서는 2022년과 2024년 참여한 ‘한강 나이트 워크’ 생각이 났다. 한여름 밤 12시 자정부터 원효대교와 잠수대교를 경유하는 총 15Km를 걸었다. 3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걷기 전과 후로 달라질 어떤 변화, 새로운 다짐 같은 것을 기대하며 걷기 시작하지만 늘 결론은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로 끝난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여름이 시작되면 스스로 그 고됨을 자처해 습기 가득 머금은 뜨거운 땀으로 가득 찬 뿌듯함을 다시 경험하려고 참가 신청을 알아보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하동에 거주 중인 그와 연애했던 하동에서 창원으로, 창원에서 하동으로 가는 길에 자주 관통하는 마창대교를 지날 때마다 생각이 더 깊어졌었다. 그와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을 그리거나 삶의 방향을 논의하는 동안 나는 나의 세계관을 노골적으로 직면했다. 특히 마창대교를 오가는 동안에는 서로의 거점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서로의 시간과 앞으로의 삶이 서로를 향할 수 있도록 이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하는 것 같았다. 분명 어느 날과 다름없는 마창대교였음에도 다리를 건너기 전과 후가 분명 달랐다. 혹시 아주 사소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고 싶은 용기를 얻고 싶다면 강민석 작가님의 [어크로스 더 리버스]를 추천한다.



이영령 이영령 성악연구소 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악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성악가로 활동하며, 다수의 대학교와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음악 상송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영화 제8요일

‘Maman la plus belle du monde’는 원래 ‘La piu belle del mondo’라는 이탈리아 칸초네로 페르낭 보니파이가 프랑스어로 개사하고 루이스 마리아노가 불러 유명해진 곡이다. 이 곡은 상송과 칸초네 두 장르의 특징을 모두 가진 곡으로 부드럽고 서정적인 멜로디라인이 특징이다. 전통적인 화성과 아름다운 멜로디 진행이 돋보이며, 풍부한 오케스트라 반주에 루이스 마리아노, 티노 로시와 같은 성악기반의 가수들이 많이 불러서 고음역대를 활용하거나 풍부한 성량을 요구하는 성악적인 발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곡의 주요 가사를 통해 곡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엄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주위에 당신보다 더 예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은 어머니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어머니가 가장 아름답다는 화자의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낸다. 단순한 외모를 넘어, 화자의 눈에는 어머니의 모든 존재가 가장 아름답게 비치는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인정하건대 이상하게도, 천국의 천사 같은 얼굴을 가졌어요.’ 여기서 “이상하게도(C'est étrange)”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경이로워 마치 현실 세계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을 강조한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어머니가 지닌 순수함, 온화함, 그리고 자비로운 모습을 천상적인 존재에 비유하여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마치 천사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화 ‘제8요일’은 다윈 증후군을 가진 조르주와 삶에 지쳐있던 세일즈맨 해리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작

품이다. 이 영화에서 ‘Maman la plus belle du monde’곡이 사용된 방식은 영화의 주제와 분위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인공 조르주는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영혼을 가진 인물이다. 어머니에 대해 변치 않는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이 곡은 조르주의 순수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사랑과 이해를 다루는 이 영화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국경과 장애를 넘어선 보편적인 감정이며, 이 곡은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류애적 메시지를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삶에 지쳐있던 해리가 조르주를 통해 점차 변화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곡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징적인 음악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라는 곡의 메시지는 영화 ‘제8요일’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있다. 육체적, 정신적 완벽함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사랑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영화의 메시지를 이 곡이 더욱 공고히 해준다.

결론적으로 ‘Maman la plus belle du monde’는 ‘제8요일’에서 단순히 배경음악을 넘어, 영화의 주요 테마인 순수함, 사랑, 치유를 강화하고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예술적 장치로 영화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경남 문화예술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www.gyeongnam.go.kr/culture



2025하반기 창원문화재단 PROGRAM

성산아트홀

2025 키즈 클래식

8.9.(토) 17:00 / 소극장
10.18.(토) 17:00 / 소극장

2025 문자문명展

8.20.(수) ~ 9.1.(월)
10:00~19:00 / 전시실

성산아트홀 개관 25주년

오페라 <죽음의 도시>

9.13.(토) 19:00 / 대극장
9.14.(일) 15:00 / 대극장

2025 뮤직페스티벌 창원

11.3.(월) ~ 7.(금) / 소극장

토요콘서트

<선우정아x카더가든>

11.29.(토) 15:00 / 대극장

송년 특집

<백건우x이무지치>

12.21.(일) 17:00 / 대극장

3·15아트홀

국립극단 초청 <십이야>

8.1.(금) 19:30 / 대극장
8.2.(토) 14:00 / 대극장

SUPER! 수요일콘서트 8월

<생기복덕 with TAAL>

8.27.(수) 19:30 / 대극장

가족뮤지컬 <넘버 블록스>

9.13.(토)~14.(일)
11:00, 14:00, 16:30 / 대극장

SUPER! 수요일콘서트 10월

<BMKx김오키럽>

10.29.(수) 19:30 / 대극장

산학협력 뮤지컬 <여명>

11.7.(금) ~ 9.(일) / 소극장

국가무형유산

명인 특별기획 <거인>

10.23.(목) / 소극장

뉴서울 필하모닉x한수진

<천상의 손끝, 거장의 선율>

12.6.(토) 16:00 / 대극장

뮤지컬 갈라콘서트

<박진주x민경아x정선아>

12.18.(목) / 대극장

진해문화센터

<앤디워홀展

: Hello Andy!>

7.13.(일) ~ 10.26.(일)
10:00 ~ 18:00 / 야외공연장 전시실

2025 창원 락 페스타

8.23.(토) 19:00 / 진해야외공연장

진해 별밤 콘서트

9.26.(금)~27.(토) / 진해야외공연장

연극 <THE FATHER>

10.18.(토) 19:00 / 공연장

10.19.(일) 16:00 / 공연장

창원의집/역사민속관

낭만고택 9월 & 10월

9.26.(금)~27.(토) 18:00
10.24.(금)~25.(토) 18:00
창원의집

역사민속관 기획특별展

<단청, 시간의 채색>

9.2.(화) ~ 11.30.(일)
역사민속관 기획전시실





어린이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
2025. 8. 9. ㉔ 오전 11시, 오후 3시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쏜다.
2025. 8. 23. ㉔ 오후 3시



인형극 오늘, 오늘이의 노래
2025. 8. 9. ㉔ 오전 11시, 오후 3시



국립현대무용단 <HIP합>
2025. 9. 20. ㉔ 오후 3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with 양인모, 지안 왕, 디미트리 무라스
2025. 11. 22. ㉔ 오후 5시

김해문화의전당 기획공연 GASC20



프랑스 현대무용 <픽셀>
2025. 9. 13. ㉔ 오후 3시



어린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
2025. 10. 18. ㉔ 오전 11시, 오후 3시



연극 보물찾기
2025. 12. 6. ㉔ 오후 2시, 6시



10월, 11월, 12월 저녁의음악회
2025. 10. 23. ㉔ 오후 7시 30분
11. 27. ㉔ 오후 7시 30분
12. 18. ㉔ 오후 7시 30분

2025 Great Season

경남문화예술회관 2025 하반기 기획공연

패키지 할인 최대 40%



악단광철 콘서트
매우 취라!
9. 4.(목) 19:30



뮤지컬 정글북
9. 12.(금) 19:30
9. 13.(토) 11:00, 15:00



국립정동극장
광대: Gwangdae
9. 26.(금) 19:30



국립합창단 시네마 클래식
Cinema Classics
9. 30.(화) 19:30



안은미 컴퍼니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10. 24.(금) 19:30



이지운 & 문지영
듀오 리사이틀
11. 6.(목) 19:30



김경란류 권번춤
예맥: 반월(半月)
11. 15.(토) 16:00



뮤지컬 쿵쾅
두번째 이야기 - 얼쑤
11. 27.(목) 19:30
11. 28.(금) 19:30



국립오페라단
오페레타 박쥐
12. 12.(금) 19:30
12. 13.(토) 15:00



2025 송년콘서트
이탈리안 4 테너스
12. 16.(화) 19:30

문의 1544-6711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 **결연사업** 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 **예술단체 워크숍**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Member Support Projects

- **찾아가는 공연** 기업 임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 **문화공감**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회원사에 우수 문화행사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 **문화경영도서** 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경영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전달합니다.
- **예술 동아리 지원** 사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 **지정기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원사 메세나 활동 홍보** 회원사의 메세나 활동을 메세나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 **행복한 나눔공연**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즐거운 나눔티켓**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 **경남메세나포럼** 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지역문화특화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 **찾아가는 메세나**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 **경남메세나대회**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 **경남메세나상 시상**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다우링에너지

(주)무학

범한산업(주)

(주)씨티알

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로지

이사사

경남스틸(주)

(사)경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주)금아하이드파워

(주)리베라관광개발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국립창원대학교 음악과

(주)화성G&(주)

대양산업가스(주)

청호산업(유)

회원사

가야BBS(주)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가야오페라단

(주)거명인텍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경남개발공사

경남국제합창조직위원회

(사)경남기독문화원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경남신문사

경남오페라단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의원

고운치과병원

광득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강종합건설

(주)금술개발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업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주)남광디씨텍

남명산업개발(주)

남양매직(주)

(주)느티나무의 사랑

늘푸른 요양병원

다몬틀링

당당한방병원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대성정보시스템

(주)대승엔지니어링

대신금속(주)

(합)대선전기공업사

(주)대중이엔에프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주)대호테크

더 스페이스 갤러리

(주)덕광중공업

(주)도원리사이클링

(주)동구기업

동성정공

(주)동은화학

동진화금(주)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엠(주)

디케이리크(주)

라온산업개발(주)

리턴성형외과의원

(주)미창대교

(주)만보건설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운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범무법인미래로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북성산업

(주)사릭

(주)산호수출포장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삼일정보시스템(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주)

상화도장개발(유)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북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종씨엔지

(주)세호

송죽전장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주)

(주)세노텍

아나파악국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

(주)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주)

(주)엔지피

영광산업(주)

(주)영신오토모티브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옥산아이엘티

원광산업석재

(주)웰템

유림건설(주)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년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주)이나인파워텍

이수디앤씨(주)

(주)이우

(주)이더블유코리아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임진각

(주)잇핀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트

(주)좋은콘서트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주)지엔티

진해성모병원

창원상공회의소

청이의료재단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주)케이조선

(주)참신한건설

(주)코텍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주)

티케이지태광(주)

(주)포스텍

푸주옥

파케이벨브엔지니어링(주)

하동 케이블캐(주)

하이에코리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반도

(주)한창테크

(주)해드림엘피씨

해성메탈(주)

현대공업(주)

(주)현대기업

현대로템

현대위아(주)

(주)해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주)흥인코퍼레이션

흥일기업(주)

JK컨벤션웨딩

STX엔진(주)

the큰병원

회원 가입 안내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2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gnmecenat.or.kr	
개인	1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비용 후원
농기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농가의 빠른 일상복귀를 응원합니다.

100년 기업  무학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제조사/판매사 : (주)무학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new
renewable
energy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2, 601호

TEL : 055-757-0988

FAX : 055-757-4920



고객 가치실현으로 감동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NO.1 절삭공구 유통 전문기업

다몬툴링과 비전글로벌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차, 금형, 정밀기계, 항공우주,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절삭공구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생산성 및 이익 실현을 최우선의
기업가치로 추구합니다.

대표이사 김정진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2, 507호

TEL : 055-757-0989

FAX : 055-757-4930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고객 행복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경남은행이 바른 금융, 새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을 펼쳐갑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BNK 경남은행

